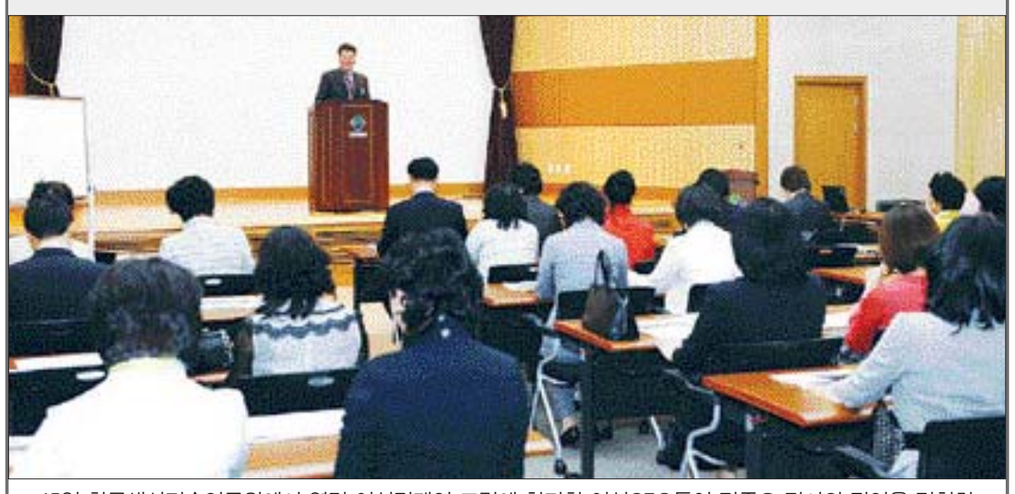
광주일보- 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김종오 한국전력거래소 감사 특강



15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여성경제인 포럼에 참가한 여성CEO들이 김종오 감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

"남도 특유의 상상력 발휘 글로벌 제품 생산 힘쓰자"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뚫고 살아남으려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며 남도 특유의 상상력을 제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15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제 32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김종오 한국전력거래소 감사는 '세계경제 환경과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감사는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은 글로벌화(Globalization), 디지털 혁명,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요약된다"면서 "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 시스템과 문화·관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기여를 꾀하는 이른바 현지화(Localization)에 몰두하는 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사가 강조한 글로벌화는 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자본·기술·인력이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고, 하나의 국가가 1개의 시장을 형성하는 범주를 지구촌(Globe)이 1개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1국가 1시장의 체제에서는 경쟁대상자가 명확한 반면 글로벌 시대에서는 전 세계의 기업이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세계 각국의 시장점유율에서 상위를 점하게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된다.

또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아 정보의 독점현상이 붕괴함에 따라 기존의 업종들이 재편되고, 인터넷뱅킹·옥션·사이버몰 등 새로운 경제영역이 형성된다.

특히 세계 경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즉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절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게 김 감사의 주장이다.

김 감사는 "지역기업,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세계의 흐름에 무관심해서는 발전은 커녕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함께 세계시장에 도전한다는 적극성을 가져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광주·전남지회 회원 80여명과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배정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용인에 중앙연구소 건립

700억 투입 내년 완공…세계적 수준 최첨단 성능 시험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가 '2015년 세계 5위 타이어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중앙연구소를 착공하고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금호타이어는 15일 경기도 용인에서 오세철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착공식을 가졌다.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는 700억 원을 투자,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부지면적 3만4천842㎡, 연면적 2만4천92㎡ 규모로 건립된다.

중앙연구소는 기존의 광주연구소, 미국 오하이오주 아크론에 위치한 미국기술연구소(KATC), 영국 버밍험에 있는 유럽기술연구소(KETC), 중국 톈진 중국기술연구소(KCTC) 등 금호타이어의 국내외 기술연구소를 통합 관리하며 전세계 R&D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5일 기공식을 갖는 경기도 용인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조감도.

이를 위해 중앙연구소는 타이어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리·화학 시험설비는 물론 세계적 수준의 타이어 소음, 진동 시험기 등 최첨단 성능시험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중앙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금호타이어는 현재 국내외 600여 명 수준의 연구인력을 오는 2015년까지 두배 가까이 충원하고, 지난 50여년간 축적해온 타이어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집중 강화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개발 및 경쟁 우위의 확보, 친환경 제품개발 등의 선진 타이어 기술을 주도하게 된다.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은 "용인 중앙연구소는 세계 TOP3 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국내외 R&D부문의 전략적 요충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를 넘어 전세계 타이어 기술력의 메카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닭고기 소비 촉진 무료 시식

광주농협 전 영업점 … 삶은 계란 선물도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에서는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닭고기 무료 시식회를 비롯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한다.

15일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전 임직원이 닭고기 시식회〈사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대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지역본부 산하 각 영업점에서 고객들에게 삶은 계란을 선물로 나눠주는 소비촉진행사를 펼친다.

신성수 광주본부장은 "닭이나 오리고기를 섭씨 75℃에서 5분 이상 익히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현대·기아, 글로벌 인재 양성 청년봉사단 1천명 해외 파견

현대·기아자동차그룹(대표 정몽구 회장)이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현대·기아차그룹은 15일 서울 양재사옥에서 정몽구 회장 주재로 '제1차 그룹 사회책임위원회'를 개최해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 1천명을 해외에 파견하고 대학생 인턴사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그룹은 우선 올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활동할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 1기 500명을 선발하기 위해 19일부터 참가 접수에 들어가고, 겨울방학기간 활동할 2기 500명은 11월 별도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청년봉사단 1기는 중국·인도·터키·슬로바키아·태국 등 5개국에 파견돼 환경, 지역복지, 의료, 식문화 부문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현대·기아차그룹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19일부터 현대차 인턴사원 100명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그룹 전체 500명을 모집,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별 선발일정과 모집요강은 각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된다.

한편, 이날 처음 열린 '현대·기아차그룹 사회책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인 정몽구 회장 외에 부위원장인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현대자동차 최재국 사장, 기아자동차 조남홍 사장, 현대모비스 정석수 사장, 현대하이스코 김원갑 부회장 등 자산 2조원 이상 5개 계열사 대표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유진, 고려시멘트·기초소재 흡수 합병

유진그룹이 모회사인 유진기업을 중심으로 시멘트 자회사인 고려시멘트와 기초소재 등 건설자재 3개사를 흡수 합병한다.

또 올해 안에 유휴자산 등 3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한다.

유진그룹 주영민 전략담당 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마트 인수후 일시적인 유진기업의 차입금 증대로 유동성 악화, 신용도 하락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경영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기초소재, 고려시멘트 등 건자재 관련회사를 오는 8월 1일부로 유진기업으로 합병하기로 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유진기업은 자산규모 1조5천억원, 매출 8천억원, 부채비율 118%, 시멘트 공장 3개와 레미콘 사업장 33개를 갖춘 대형 건자재 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연합뉴스

제품 품질·안전 비교 '정보 포털' 9월 가동

제품의 품질, 안전, 피해, 주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하는 정보 포털이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시의성있게 제공해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정보의 집적 및 배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비교 소비자 정보 포털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포털에는 제품의 품질, 안전, 피해, 주의사항 등과 함께 소비자가 직접 사용후기를 올리거나 평가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해 '잎새 영화사랑 이벤트' 펼친다

지역민 대상 참가자 접수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광주·전남지역민들을 대상으로 16일~23일 '잎새 영화사랑 이벤트' 참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보해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280명을 선정, 각 2매씩 총 560매의 영화티켓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보해는 각 지점 영업사원들의 판촉행사를 통해 640매를 배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1천200여명을 이벤트에 초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해 홈페이지(www.bohae.co.kr)의 퀴즈에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보해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문의 (062)370-6270.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